

14세기의 새로운 불복장 자료 (14세기의 새로운 佛腹藏 資料)

許 興 植

<慶北大學校 教授>

目次

- 머리말
- | | |
|-------------------------|-----------------|
| 1. 遺物의 概觀 | 3. 資料의 重要性과 思想性 |
| 2. 1322년 千手觀音鑄成文의 검토檢討 | 맺음말 |

머리말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은 불교와 관련된 예가 대부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교는 당시 국교였을 뿐 아니라 문화활동의 종합적인 관념을 제공하고 있었다. 유물 가운데 고문서(古文書)와 목제품(木製品)은 부패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소재(素材)이므로 현존하는 예가 많지 않다. 대다수가 무기물로 된 불상(佛像)이나 금석문(金石文)만 남아 있다.

다만 서책(書冊)과 사경(寫經), 그리고 불화(佛畵) 등은 국내와 일본에서 비교적 여러 유물이 소장되고 있으나 고문서(古文書)나 목제품(木製品)은 극히 드물다. 필자는 1년전 유기물로 제작된 불교관계 유물을 관찰하고¹⁾ 최근에 다시 이를 조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귀중한 자료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논문으로 발표하도록 승낙하신 제일정형외과 백종흠(白宗欽) 병원장께 감사드린다. 또한 소중한 자료를 잘 보관하여 학계에 제공하신 뜻에 부응할 수 있을 지 염려스런 마음으로 학계에 소개하려 한다.

1. 유물의 개관(遺物의 概觀)

일괄된 유물을 보관한 백종흠(白宗欽)박사는 고고미술(考古美術)에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이 분야에 지식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였으나, 생활의 여유를 호고(好古)의 취미로 가꾸면서 살아가는 품위를 보였다. 이 유물은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을 두자 여러해 전 시내 골동상에서 연락이 와서 구입하였다고 한다.

1) 大邱市內 東仁洞에서 第一整形外科病院을 開業하고 있는 白宗欽院長의 소장품이다. 이 자료는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1986, 미진사)에서도 간략히 부분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유물은 연대(年代)가 뚜렷한 고문서(古文書) 3점(點)과 목통(木筒) 2점(點), 그리고 사경(寫經) 등이었다. 목통(木筒)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물이 꼭꼭 채워 있어서 문헌(文獻)만을 주로 연구해 온 필자에겐 이를 소개하기 벅찬 느낌이 있다. 다만 깊은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개하는 데에 만족함으로써 이 방면에 조예있는 전문가의 재고(再考)를 기대하고자 한다.

내용을 대강 검토한 결과 불복장물(佛腹藏物)이 틀림없었고, 이를 품고 있던 불상(佛像)은 따로 분리되어 유실되었다고 추측되었다. 소장자는 값나가는 유물은 없고 그 찌꺼기를 구입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유물은 크게 둘로 나누어 하나는 종이로 된 고문서(古文書)와 사경(寫經), 그리고 범자(梵字)만다라이고, 나머지는 두 개의 목통(木筒)과 그 속에 채워 놓은 섬유·벼(稻)·향목(香木) 등이다. 이는 문헌자료(文獻資料)와 비문헌자료(非文獻資料)로 나누는 방법과도 일치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자료를 개관하고, 그 가운데서 연대(年代)가 수록되어 있는 고문서(古文書)를 중심으로 모든 자료의 일괄성(一括性)을 규명하고자 한다.

(1) 대덕오년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大德午年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이 문서는 세로·가로 12.5cm×30cm 의 얇고 비치는 저지(楮紙)에 범자(梵字)를 쓰고, 그 옆에 한자(漢字)로 음(音)을 적은 관세음다라니(觀世音陀羅尼)이다. 같은 종이가 3장인데 한 장에는 이보다 작은 다라니문서(陀羅尼文書)와 점연(粘連)되어 있다. 작은 다라니문서는 종이의 질과 세로는 같으나 글자를 새긴 폭이 좁고 가로의 길이는 13.5cm로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결국 4장의 다라니문서임에는 틀림없으며 3장은 같은 내용의 목판(木板)을 거듭 인쇄하여 보관한 것이므로 내용상 차이는 없으나 종이의 길이나 인쇄된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큰 종이에 인쇄한 관세음(觀世音)다라니는 첫줄에 “불정심관세음보살다라니왈(佛頂心觀世音菩薩陀羅尼曰)”로 12자(字)이고, 다음부터 범어(梵語) 7자(字)와 한자(漢字) 7자(字)를 각각 대비시켜 각각 14행(行)이다. 1행(行)의 한자(漢字)는 낭모라(囊謨囉)로 시작하여 끝행은 미살박하(彌薩縛賀)로 끝나며, 범자(梵字)는 1자(字)를 한자(漢字) 2자(字)로 표현한 예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 “대덕오년오월오일 권운서(大德午年五月五日 權暉書)”라 밝혀진 점이다. 이는 이를 쓴 인물과 연대(年代)를 밝힌 것이고 시기는 1301년(충렬왕(忠烈王) 27년, 원(元) 성종(成宗) 5년)에 해당한다. 권운(權暉)은 사서(史書)에 없는 인물인데, 다만 『고려사』에서 “1302년에 급제자(及第者) 20인(人)을 뽑아 외교문서(外交文書)와 불소(佛疏)를 쓰게 했을 때 거듭 합격한”²⁾ 권운(權暉)과 같은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작은 종이에 인쇄한 범자(梵字)다라니는 필자의 능력으로 알 수 없으나, 앞의 관세음다라니의 한자로 쓴 발음을 제외한 부분이 앞에 놓여 전체의 삼분지일 가량이고, 첫머리에도 한자(漢字)로 “불정심(佛頂心)”이라 하였다. 다음은 부적(符籙) 다음에 “소재주(消災呪)”라 명시한 바와 같이 소재진언(消災眞言)이고, “파지옥(破地獄)·준제(准提)·보루각심(寶樓閣心)·소만병(消萬病)·단온(斷瘟)”등의 한자구(漢字句)가 군데군데 섞인 점으로 미루어 이와 관련한 기복적(祈福的)인 다라니라고 짐작된다. 이 작은 다라니문서에는 저자(著者)와 연대(年代)가 끝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서체(書體)로 보거나 내용상 상관성이 큰 문서라 생각된다. 지질(紙質)도 위와 같다.

2) 『高麗史』 卷 32, 世家, 忠烈王 26年 6月 乙亥

(2) 범자원상(梵字圓相)만다라

두가지의 원상(圓相)만다라가 있다. 하나는 다식(茶食)의 모양으로 원형안에 범자(梵字)로 “옴”자를 중심으로 6자(字)씩 쓰고 그 밖에 원형(原型)의 테를 두른 도형이다. 이것은 세로와 가로가 9.2cm×30.3cm의 띠모양 종이에 원형의 다식무늬와 같은 원상(圓相)을 여섯 개씩 새긴 목판인쇄이다. 이와 같은 종이는 2장이며, 내용도 똑같아서 두장을 찍어서 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질(紙質)은 앞의 종기와 같고 범자(梵字)의 자체(字體)로 상통한다. 이와 같은 다라니는 문수사(文殊寺)에서 복장문서로 발견되었던 단온진언(斷瘟眞言)으로 추측된다.³⁾ 모양이 꼭 천연두를 닮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의 다라니원상(圓相)은 세로와 가로가 37cm인 정사각형의 위와 같은 지질(紙質)의 종이에 지름 30.3cm 원(圓)의 중심에 4cm 지름의 작은 원을 중심으로 같은 크기의 원을 십자형(十字型)으로 배치하고 각각 원내의 같은 모양으로 범자(梵字) 5자(字)씩 배열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원 옆에 범자(梵字) 1자(字)씩 넣은 지름 2cm의 원을 첨가하고, 밖으로 다시 8개의 같은 도형을 첨가하면서 연화문(蓮花紋)을 넣었다. 그밖으로 동심원으로 범자(梵字)를 4행(行)으로 배열하였고, 그밖은 원선(圓線)으로 테두리를 나타냈다. 원밖의 네귀퉁이에 4cm 지름의 원안에 범자(梵字) 1자(字)씩 넣었다. 이러한 문양은 우주의 원리와 자아(自我)의 일체(一體)를 나타내는 범자원상(梵字圓相)만다라의 일종이라 추측된다. 이와 같은 도상(圖相)은 한 장뿐이며, 문수사(文殊寺)의 복장문서에서도 볼 수 있다.⁴⁾

(3) 불경 3 종(佛經 3 種)

불경(佛經)은 목각판(木刻板) 2종(種)과 사경(寫經) 1종(種)이고, 내용상 사료(史料)의 가치는 적지만 지질(紙質)이나 인쇄술(印刷術), 경판(經板)의 종류(種類),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어떤 경전이 중요시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이를 주목하여 불교사상의 흐름을 교리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지름길로 삼을 수 있다. 3종(種)의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남아 있는 부분은 화엄경(華嚴經) 권(卷)40의 인본(印本)이다. 첫부분 3행(行)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大佛廣佛華嚴經 卷第四十問
(대불광불화엄경 권제사십문)

東晉 天竺三藏佛馱跋陀羅譯
(동진 천축삼장불타발타라역)

離世間品第三十三之五
(리세간품제삼십삼지오)

이와 같이 구역화엄경(舊譯華嚴經)으로서 문함(問函)인 점으로 미루어 현존하는 해인사(海

3) 姜仁求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遺物」, 『美術資料』 18, 1975, p16.

4) 同上論文, p.16.

印寺)의 고종판대장경(高宗版大藏經)과 똑같다.⁵⁾ 행당(行當) 17자(字)이고 서체(書體)도 구양순체(歐陽詢體)에 바탕을 둔 고려의 일반적 목판(木板)과 다름이 없다. 현존하는 부분은 40권의 거의 전부로서 이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지질(紙質)이다. 극히 얇고 섬유질이 질기면서도 광택이 있는 고운 종이로서 필자는 잠자리 날개를 펴보던 동심(童心)이 생각났다. 처음에 경통(經筒)에 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현재현재불명경(現在現在佛名經)이 있다. 경명(經名)에 이어서 “제십일장기(第十一丈己)”라 한 점으로 미루어, 현존 고종판대장경의 같은 경전 기함(己函) 11장(張)에 있고 내용도 같았다.⁶⁾ 그 가운데 한장임을 알 수 있으며, 목판인본(木板印本)으로서 서체(書體)는 위의 화엄경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있다. 또한 지질(紙質)도 두껍고 거칠은 편이며, 권본(捲本)으로 접었던 흔적이 있으며, 종이 끝에는 빗물과 흙이 묻은 흔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경통(經筒)에 보존된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마지막 경전은 묵서(墨書)된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이다.⁷⁾ 보존상태는 깨끗하고 지질(紙質)은 조금 두껍고 거칠은 편이다. 고려의 사경(寫經)은 일반적으로 목판본(木版本)의 영향을 받아 서체(書體)에도 경직성이 엿보이지만 이 사경(寫經)은 그와 달리 글씨가 부드러운 편이고 글씨의 끝이 말리거나 굽어진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부드럽고 개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14세기부터 나타났던 조맹부체(趙孟頫體)와 가깝고 시기도 당시초의 것이 아닌가 한다. 분량은 약 반권(半卷)가량으로 화엄경의 절반가량이다.



천수관음 주성원문

(4) 천수관음수선원문(千手觀音鑄成願文)[사진, 寫眞]

묵서본(墨書本)이고 이와 관련된 문서는 모두 3장이다. 엄격히 말하면 주성원문(鑄成願文)과 여기에 연결된 2건(件)의 거안(舉案)이나 같은 거안(舉案)으로 점연(粘連)되어 있지 않다.

5) 『高麗大藏經』 8, 1975. 民族佛教研究所

6) 『高麗大藏經』, 12, 1975.

7) 『大正新大藏經』 13, 1969. K421

각 문서의 크기는 (A) 세로 31.4cm× 가로 71.4cm, 그리고 (B)의 세로는 (A)와 같고 가로는 53.7cm, (C)는 52cm 인 두장의 문서를 합쳐 3장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A와 B가 점연(粘連)되어 있고 C는 문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지질(紙質)이나 서체(書體)는 (A)와 C가 같고 B는 다르다. A와 B는 극히 희고 부드럽고 두꺼운 종이로서 두께와 감촉은 부드러운 용단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B는 다른 것에 비하여 거칠고 얇으며, 색깔도 우유빛이 아니라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다.

이들 문서 가운데 A에는 지치이년임술(至治二年壬戌)(1322)이란 절대년도를 밝힌 점이며, 3문서가 서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의 향통(香筒)과도 밀접하므로 다시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중요성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5) 목통 2점(木筒 2點)

이것은 원통모양 목통(木筒)이고, 돌림관을 이용하여 깎아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더욱 아름답다. 높이 6.7cm, 지름 5.5cm로서 뚜껑도 꼭맞게 깎아서 빈틈이 없다. 이 목통은 너무나 깨끗하므로 이를 소장한 분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내용물을 검토한 결과 천수관음주성원문(千手觀音鑄成願文)의 거안(學案)에 실린 내용과 상관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추측된다. 소장한 분은 이에 대해서도 값도 치지 않고 덤으로 얻었다고 하였으나, 그 내부에 꼭꼭 채운 물건들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

내용물은 오색(五色)의 천(箋)을 오색사(五色絲)로 꼭꼭 묶어 세워 놓았고, 그 바닥에는 향목(香木)과 벼(稻)가 있었다. 두 개의 목통 가운데 한쪽이 터지고 벌레가 침범하여 약간 파손된 흔적이 있으나 그리 심하지 않았고 벌씨가 두알 있었다. 좀더 완전한 통에는 오색전(五色箋)과 실은 같으나 벌씨가 한알 있었다. 이 벌씨는 다음에 분석될 바와 같이 1322년에 천수관음상(千手觀音像)을 제작하고 장치한 복장물(腹藏物)이므로 절대년도를 알 수 있는 벼알이란 점에서 농업사에서 중요시하여 재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한다. 벌씨는 오늘날의 것보다 약간 껍질이 두껍고 거칠어 보였으나 길이가 약간 짧은 모양이었다.

오색사(五色絲)로 짠 오색전(五色箋)은 주로 명주로 보였으나, 거안(學案)에도 면(綿)이 보이고 실제로 면직(綿織)으로 보이는 섬유도 간혹 있으므로 이 방면의 지식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이보다 후에 문익점(文益漸)이 면화(棉花)를 전래하였다는 농업사의 통설을 따른다면 이것이 전래품(傳來品)인가 생산품(生產品)인가에 따라 중요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방면의 전문감정이 필요하다.

오색전(五色箋)은 각각 녹색(綠)·황(黃)·홍(紅)·청(靑)·고동색 등이었으며 색상은 매우 선명하였다. 섬유 염색(染色)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각각의 목통(木筒)에는 5색(色)의 오종전(五種箋)을 각각 실로 꼭꼭 묶어서 채웠으나 혹시 부스러질까 염려되고, 아직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 예비 지식이 없는 필자로서 수집가의 양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펴 볼 수 없었다. 앞으로 검토될 거안(學案)에 수록된 내용물과 상관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6) 1614년 조성불상시주명단(1614년 造成佛像施主名單)

이는 만력(萬曆) 4년(1614년) 12월(계동(季冬)) 8일부터 다음해 8일(몇 켜 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1월이 아닐까 한다)까지 삼존위(三尊位)의 불상과 2위(位)의 통불상(通佛像)을 만

들 때, 박주질삼(朴注叱三)과 서막동부부(徐莫同夫婦)를 중심한 시주자(施主者)를 나열하였다. 특이하게 시주자(施主者)의 이름 끝에 발문(跋文)처럼 이 사실을 연대(年代)와 함께 9행(行)으로 수록하였다. 이보다 앞에는 수많은 세속인(世俗人)과 비구(比丘)의 이름을 나열하였다. 세속인은 김계백(金桂白) 양주(兩主)라 하였듯이 부부(夫婦) 가운데 남편(男便)의 이름 아래에 양주(兩主)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세속인 다음에 출가비구(出家比丘)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침체했던 불교계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출가승(出家僧)의 다음에 세속에 세속인을 썼기 때문이다.

앞부분의 상단(上端)은 파손되었으나 각각 수록된 인명(人名)의 수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대시주질(□□大施主帙)…4인(人)의 세속인과 그의 2인(人) 비구(比丘)
- 황금대시주질(黃金大施主帙)…김계백(金桂白) 등 10인(人)과 그들의 처(妻), 지전(持殿), 지임(持壬)(임(任)과 같은 뜻)의 13인(人) 비구(比丘)
- 공양대시주질(供養大施主帙)…김정보(金丁補) · 김득이(金得伊)와 처(妻)
- 복장(腹莊)(장(藏)의 잘못)대시주질(大施主帙)…강대신(姜大申)과 그의 처(妻)
- 황금대시주질(黃金大施主帙)…신희(信熙)등 32인(人)의 비구(比丘)와 김씨숙례양주(金氏熟禮兩主)
- 사중질(寺中帙)…응매(應梅) 등 8인(人)의 비구(比丘)
- 화원질(畫員帙)…대별좌(大別座) 지운(智云) 등 11인(人)의 비구(比丘)
- 녹화질(綠化帙)…김의인(金義仁) · 김성남양주(金成男兩主) · 보운(寶云) · 천원(天元)의 2인(人) 비구(比丘)

이상과 같이 6부분으로 나누어 살핀 자료 가운데 연대(年代)가 뚜렷한 것은 1301 · 1322 · 1614년 등의 3차례이며, 이것들의 상호관련성은 뚜렷하지 않다. 이를 보관한 분은 같은 곳에서 같은 시기에 수집한 일괄문서라고 하였다. 우선 천수관음상(千手觀音像)의 복장문서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322년의 천수관음주성원문(千手觀音鑄成願文)과 그 거안(學案)을 관독하면서 문서와 유물과의 관련성을 추구할 수 있다.

2. 1322년 천수관음주성원문의 검토(1322년 千手觀音鑄成願文의 檢討)

A · B의 지질은 서로 다르지만 폴로 이어 놓은 점이라든가, C와 A가 같은 필체와 지질(紙質)인 점은 서로 상관성이 있는 문서라는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주의할 점은 B의 글씨가 지질이 다른 것에 비하여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군데 군데 많은 도장이 찍혀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전문(全文)을 관독하여 읊기면 다음과 같다.(△표는 도장찍힌 표시. □은 미상(未詳)글자)

千手觀音鑄成願文
 夫十方諸太菩薩太悲大願雖曰甚
 深我千手解自在菩薩太願[○]
 爲第一昔於千光至靜住如來前
 卽發誓言若我當來堪能利
 益一切衆生令我身生千手千
 眼發是願已應壽身上千手千
 眼悉皆俱足太願甚深感得如
 斯手眼於世後世欲免苦難者捨
 此何歸故貧道惡發霞誠欲鑄
 成千手悲尊像庶望諸善道
 俗名抽隻手隨力隨喜以此善因
 不亦宜乎
 皇帝陛下統御萬年大尉王殿下壽千
 秋當今主上保位天長文虎百僚各
 保疆齡干戈不起永致大平禾穀
 豐登法界含靈丹霑潤益

천수 관음 극선원문
 극심 방계 태 보살 터비
 심아 천해 자 재 보살 태원
 위제방 식이 천광 지 정극 여래 전
 즉 보서인 여대 당래 감능리
 익안 전중생 경야 생생 천수천
 안방 시원 기응수 신상 천수천
 만실 개구족 태원 심심 감득여
 기수 안이 세곡 세옥면 고난자 사
 차라 귀고 빈도 간발 하성 옥 즉
 성천 수비 존상 성망 제 선도
 속명 추척 수수 념수 회이 차 선인
 불여의호
 황제 계이 만년대 위 왕 전
 즉 당 금주 상보 위 천장 문호 백도
 보강 령 간과 복기 명치 대평 화
 풍등방계 함령 단점

△ 至治二年壬戌七月日誌
 勸善道人 永農
 지치이년 ^술계월일
 권선도인 영농

同願盧氏	同願	夫介
同願池氏	同願道人難守	<input type="checkbox"/>
同願朴 <input type="checkbox"/>	同願	具碩
	同願	<input type="checkbox"/>
舉案 △	鄭氏	<input type="checkbox"/>
	禹氏 <input type="checkbox"/>	許仁 卅月
		金 <input type="checkbox"/>

金本 △ △ △ △
 上金雪錦子 任松
 右金幹一尺自稱伊 權 曹氏孫師 曹□□ 之世
 黃漆 □ 鳳金□ 尊成 神
 香幣四十四 △ 香幣布一加都智 △ 內應伊 △ △
 區甫
 金線囊十乙高石
 金氏李珠衣
 錦座子 鄭守溫 △ △ 江
 占紙一點平壤郡夫人趙氏 江晉郡夫人姜 △
 千金守眞
 彩色 火加伊刀 伊葉 同願孫□□ 林□
 占紅金線□□十乙 吳貞 伏金
 吳莊
 金幹十乙古伊古文氏十乙古伊 占金氏十乙古伊古文氏錦子一古伊
 占甫珠錦子十乙古伊錦貳古伊古勻伊文氏李英
 筆伊女李氏允氏占勿玄用錦子麻十乙且□
 占紙一此女加良
 占囊一 光捕 占狀紙十乙□ 雖珠衣文氏西月寶連
 占貳古伊孫氏女 丁占勿伊占狀紙一點廣氏 又比伊 李慎
 李柱生 金氏女
 占紙十乙貼覆藏占金線香幣帕十乙占勿伊翁氏女
 占錦子三古是許氏相住加氏九比伊 □ 李氏 同元柳富
 占錦子三古是麻慙郡夫人洪氏 同願 □□ 同 普同 眞
 成 □ 紅珠衣
 占錦子十乙古是德齊占錦子占勿加 占米一刀夫乙伊 盧瑞
 韓氏 張氏 △
 占錦子十乙古是加角占錦子 夫才伊 △
 占錦子三古是慈口 高益忠 徐伯陶羅伊
 加氏女
 占錦子二錢善夫 天祐占香幣一郭氏
 占紙一點馬□
 占紙一點李氏上同諫濟□□占紙十乙□六月 李玄
 梓伊
 占錦子廣大
 占紙一點李□金氏五務果舞 占袂氏□ 韓□良世
 占狀紙十乙貼□
 占紅線線幣一履貝履藏顯出母長命顯履一 □ 司空
 占米二升金寶鼎 崔擔長慶 朴尙
 宗玄金氏女高氏女白氏女
 占錦子裏久金氏夫人仲璋加伊叔介才□立顯小斤女萬夫日女
 守德女

全民 金子換

衆生正月小莊今勿伊小斤伊每方伊所火伊九月 伯在勝莊
 戊母令文伊生令鶴誠奉城木□立願 白□△ 梁□
 占綿子中原郡夫人左金上綿子十乙吉是金氏□□金□
 占綿子金安二子換德女納綿子占綿子貳古伊康三伊□
 占綿子一貼其每伊 道康郡趙氏 △ 同願盧氏 李□
 占綿線一借注之伊 同願□ 允璽金平
 占糸干仕廷伊 朴氏納綿占卒高二 從壯
 占糸金正月 鄭氏 盧氏 大和尚 △ 法勝
 占狀紙十乙貼明神女新生男子千金 法奇
 占狀紙十乙貼 金氏 同願鄭氏同願趙文瑾崔氏□
 占香幣一文氏尹 金同願李氏 金□ 法宙
 占香幣一申氏 同願丁□ 朴仁□
 占綿子李氏 同願金氏金氏仇化李氏
 占綿子朴氏金景善莊松加卜線蓮釜難者加介如良伊
 占綿子盧氏 △ 善龍女米一刀 崔□△
 占延女石宿人宋 加也之香幣十乙 全一想
 占向狀紙十乙貼茶香 李氏夫人袁氏夫人用
 占綿子因古是崔進良金東平 占儀顯香幣帛
 占身糸義興郡夫人朴氏西角金善大 同願韓 □氏女
 占綿子十乙古伊 血用 崔巨烈水金時背金 劉越吳□
 占公一綿子十乙古伊□□□□鳴加伊延花金氏奴杏立 李莊
 占義 △ 尹承 女子末在伊黃氏

勸化道人 天原
 同願道人 甫守
 同願 世一 中○
 一冲宗如
 同願郭□□□善初
 □止 西安
 朴教 □
 同願大丘縣令康□
 日珠
 舉案 □ 行因 法眞□
 同願道守□靈案
 鑄成金三百斤 同願 崔昌
 同願中軍錄事宋三栢
 金本三升布六十疋 同願安□
 同願李大壽
 同願朴 壘
 蠟蜜二十斤 同願玄□
 黃漆 智光□
 上金雪線子三斤 同願李□

	同願劉頭一
香倍四十	同願 <input type="checkbox"/>
八葉箭 定雷	同願文之類 皮 <input type="checkbox"/>
	金權徐 <input type="checkbox"/>
	長守
喉鈴	同願金子松
	尹氏
蓮臺座	金永號
	皮氏 <input type="checkbox"/>
	尹成甫
錦莊子	崔連
棕色	
阿膠	同願有玄濟或守眞平惠
	玄或惠根抄傳竟眞
	<input type="checkbox"/>
眉光珠	
清鏡	<input type="checkbox"/> 同願金 崔戎洪
七寶	同願居士 大虛
	同願拙晨
五香	同願文永林世 光 <input type="checkbox"/>
	世眞
五藥	同願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金本玉
	<input type="checkbox"/> 升布一疋
占銀瓶一口元安	同願人金永仁
占金一點李玄	同願周久椿
占香倍一箇乙才	同願康五丹
占香倍一李氏	同願梁 潤
占縹布一尺余元暉	梁瑒
	同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同願羅 <input type="checkbox"/> 連
	同願梁 瑞
	同願薛 <input type="checkbox"/>
	同願居士李適正輝
	同願比口尼 願參
	同願道人 信 <input type="checkbox"/>
	同願 朴 光祖
	同願鄭 一祖 益田
	同願周 永拒 同願等 來福 吳頌
	同願孫 氏
	右五升布一疋李寅玉 <input type="checkbox"/> 池 內大

同元朴元柱

同願觀菴 制心

占香帑一犬伊

綿布百十崔氏

香帑一天柱

香帑一金用走井洞

同願與威衛保勝散員鄭□□

占松炭四石林□□香帑一 同願 金玠

右香帑一福淑納白米斗鄭氏同願 向西林 臣柱

同願 □□ 香帑 十乙 □□□□ 同願令同正申 守富

占香帑二康志正占香帑一姜氏女 同願柳□□□□ □□

一宋成老已納金釵龍

<page 54 한자원문>

첫 쪽에는 천수천안관음보살(千手千眼觀音菩薩)을 주성(鑄成)하는 취지를 밝힌 글이다. 천수관음(千手觀音)은 원력(願力)이 크므로 이를 주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소망(所望)의 내용은 끝에 밝힌 황제폐하(皇帝陛下)~단점균익(丹靄均益)에 나타나 있다. 황제(皇帝)·대위왕(大尉王) 그리고 금상(今上)에 이르는 당시 고려 국가의 중첩적 지배조직은 충숙왕(忠肅王)의 실권을 파행적(跛行的)으로 몰고간 상황을 나타낸다.⁸⁾ 지배자의 안녕과 백관(百官) 및 백성의 평안(平安)을 기원한 특별한 상황도 감안할 수 있지만, 그 내용보다 우리 나라에 희귀한 천수관음(千手觀音)이 실제로 조성(造成)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쪽과 셋째쪽의 문서는 내용상 상통한다. 모두 거안(學案)이라 명시된 점에서 불상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한 물자와 이를 지원한 시주자(施主者), 또는 참가자의 명단임이 확실하다. 주의할 점은 두쪽의 문서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다. 셋째쪽은 권화도인(權化道人)·동원도인(同願道人)으로 시작되고, 세속인으로 지원한 동원(同願)으로 10명 나온 다음 거안(學案) 및 주성(鑄成) 등에 필요한 물자가 실려 있다. 그런데 둘째 문서에는 불상의 조성에 가장 중요한 금속에 대해서 없는 반면 셋째쪽에는 먼저 주성금삼백근(鑄成金三百斤)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쪽과 셋째쪽이 내용상 좀 더 밀접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이는 첫째쪽과 셋째쪽이 같았으므로 첫째쪽과 셋째쪽을 연결해 보면 서체는 물론 내용상 연결도 둘째쪽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필자는 이 문서에서 첫째 쪽과 둘째 쪽의 연결을 의문시하고 소장하신 분에게 후에 풀로 연결한 것이 아닌가 물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의 연결을 상인이 연결 하였는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필자로서는 본래 첫째쪽과 둘째쪽의 다른 지질의 종이를 연결시켰다는 가정에서 몇 가지 추론을 더할 수 있다. 둘째쪽은 나머지보다 훨씬 서체(書體)와 지질(紙質)이 조잡하고 여러 가지 도장이 찍힌점, 그리고 불상의 주성(鑄成)에 가장 중요한 금속물질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둘째와 셋째 문서에 실린 인물을 비교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8) 皇帝는 元의 英宗을 말하고 大尉王은 瀋王으로 있던 忠宣王을 말한다. 元은 몽고와 고려사이에 瀋王府를 설치하고 고려의 忠宣王으로 忠肅王을 감시하게 했다. 고려의 통치는 3重 구조였던 셈이 된다.

우선 내용상 중요하지 않은 둘째 문서에 도장이 찍혀있고 첫째 문서와 연결되어 있는 까닭은 세속의 후원과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가 추측할 수 있다. 무식한 대중일수록 도장이 찍히거나 중요한 문서와 연결되면 기복(祈福)에 도움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 있다.

첫째 발원문(發願文)과 세 번째 문서 그리고 두 번째 문서의 순서로 놓고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 다음은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하여 나타내본 것이다.

- ① 천수관음발원문(千手觀音發願文)~지치이년임무칠월일지(至治二年壬戌七月日誌)……발원문(發願文)의 본문(本文)과 연대(年代)
- ② 권화도인(權化道人)~동원대구현령강□ 일주(同願大丘縣令康□ 日珠)……관음상(觀音像)의 주성(鑄成)을 주도(主導)한 도속(道俗)
- ③ 거안 □행인·법진·□(學案 □行因·法眞·□)~동원박□·동원구석·동원□(同願朴□·同願具碩·同願□)……관음상(觀音像)의 주성(鑄成)에 시주(施主)한 도속(道俗)
- ④ 거안 정씨(學案 鄭氏□)~송성로이납금이룡(宋成老已納金二龍)……관음상(觀音像)의 점안식(點眼式)에 참여한 기원자(祈願者)

이상과 같이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쪽에 쓰인 문서의 대부분은 서체가 일정하지 않고 방명록(芳名錄)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불상을 봉안(奉安)하는 의식에 참여한 도속인(道俗人)을 망라한 내용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측은 셋째쪽에 수록된 거안(學案)과 둘째쪽의 거안(學案)에 수록된 물품(物品)의 중요목록만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세째쪽의 學案	둘째쪽의 學案
鑄成金, 香俗, 八葉筒, 熨 鉢, 鉢, 蓮臺座, 錦座子, 蠟燭, 金彩色, 阿膠, 黃 漆, 眉光珠, 清鏡, 上金 雪線子, 七寶, 五香, 王 菓, 占銀瓶占金 등	鉢, 占甫球綿子, 占紙, 上金雪錦子, 黃漆, 香袋, 錦座子, 彩色, 金幹 등

거안(學案)의 內容(內容)

이상과 같이 셋째쪽의 주성금(鑄成金)은 관음상(觀音像)의 몸체를 주물하기 위한 주재료이고 미광주(眉光珠)와 칠보(七寶)는 불상을 장식하기 위한 중요 부속재료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둘째쪽은 주로 “점(占)”을 붙인 물품명과 그 시주자인데 점(占)이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기원적(祈願的)인 점복(占卜)을 의미하지 않는가 한다.

둘째, 셋째쪽에는 많은 물자의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금(金)·면(綿)·사(絲)·

미(米) 등이 있으며, 이는 목통(木筒)에든 물질과 상관성이 크지 않은가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음상(觀音像)을 주성(鑄成)하고 점안(點眼)하는 재회(齋會)에 참석한 도속(道俗)의 참여자가 기원한 신앙행위와 관련이 크리라 생각된다.

이 문서의 문자표기(文字表記)에 이독(吏讀)의 형태가 자주 보인다. 십을(十乙)은 붙여 쓰였으며, 우리말로 “열”이라 읽었음을 보여준다. 고이(古伊)·고시(古是)등 옷가지나 섬유의 길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여성(女性)의 이름이나 토속적(土俗的)인 고유언어(固有言語)의 잔재가 인명(人名)의 표기에 자주 보이므로 여기서 우리의 중세언어를 연구하는 적지 않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필자의 국어학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규명하지 못하나 이 방면의 전문가는 한번 주목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문서를 담고 있던 천수관음상(千手觀音像)은 어디서 주성(鑄成)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첫째 폭과 연결되었으리라 추측되는 셋째폭의 첫머리에 가까운 부분에 동원대구현령강□□(同願大丘縣令康□□)이란 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대구(大邱)에 가까운 곳에 있던 사원(寺院)에서 주성(鑄成)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증거라 생각된다. 또한 시주자(施主者)의 성씨(姓氏)도 대체로 조선 전기의 지리지(地理志)에 올라 있는 대구와 그 부근의 지역 성씨와 거의 일치한다.⁹⁾ 이 점은 이 자료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보관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의 중요성과 이용방향(資料의 重要性和 利用方向)

위에 소개한 자료가 흩어진 다음에 독지가(篤志家)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본래의 상태를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로 1322년에 이룩된 천수관음상(千手觀音像)의 복장문서(腹藏文書)와 유물(遺物)이라는 데에 귀결된다. 다만 1614년 시주명단(施主名單)은 개금시(改金時)에 협력한 도속(道俗)의 인물이라고 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1301년(年)의 간기(刊記)가 있는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이 21년 지나서 복장(腹藏)된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이외 년기(年紀)가 없는 불경(佛經)도 1322년에 앞서 인행(印行)되거나 묵서(墨書)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서체상(書體上) 개금시(改金時)에 넣었을 가능성은 적다.

고려의 불복장유물(佛腹藏遺物)과 문서(文書)는 여러 차례 보고 되었다. 이 자료는 이를 포함하고 있던 관음주상(觀音鑄像)에서 분리된 후에 검토했으므로 아쉬움은 있으나 문서(文

9) 34姓이 수록되었고 이 가운데 本貫을 알 수 있는 예는 극히 적다. 또한 글자가 불확실한 예와 姓을 기재하지 않은 이름이 있고 僧은 法名만 쓰였고 姓은 물론 없다. 대강 姓으로 추측되는 예로 人名數를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全 28, 李 16, 朴 10, 鄭 9, 崔·文 6, 盧 5, 康·梁·孫 4, 尹·池·林·吳·高·韓 3, 劉·周·姜·郭·柳·曹·趙·俞·裴 2, 徐·皮·羅·薛·申·宋·安·具·許·禹·任·庾洪·司空·白·元·全·黃 1.

대구지역의 姓氏는 『世宗實錄』 卷 150, 地理志, 慶尙道 大邱郡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本郡[土姓] 白·夏·裴·徐·李·[來姓]·都

壽城[土姓] 賓·羅·曹·嵇·[來姓]·柳·張·崔·申·劉·高·鄭·[續姓]·芮·陳·崔·金·李

河濱[土姓] 申·李·宋

解顔[土姓] 牟·白·河·申·丁·[來姓]·諸·秦·朴·[續姓]·韓

資己所[土姓] 金

참고로 大丘와 함께 八公山에 가까운 慶山의 姓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慶山은 이 문서의 작성보다 5년전 一然의 출생지로서 忠肅王 4년(1317년)에 令縣으로 승격된 바 있다.

[土姓] 金·全·白·[來姓]·魯·[續姓] 朴·鄭·[唐投化姓] 徐·劉

위와 같이 일치점과 다른 점도 있으나 대체로 유사성은 인정된다.

書)와 유물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소개된 불복장(佛腹藏)의 조사는 다음과 같다.

遺物年代	報告者 論文名	掲載誌
1346 1531	岡本謙 長谷寺高麗佛像腹藏遺物	人文科學 14, 15合 1966
1395	藤永鎮 藏院寺菩薩坐像及工 腹藏遺物	考古美術 128 1975
1543	文明大 洪城高山寺佛像及 腹藏調査	考古美術 9~1 1968
1346	姜仁求 瑞山文殊寺金剛如來坐像腹藏遺物	美術資料 18 1975

표입력

이상과 같이 4종(種)의 복장유물(腹藏遺物)이 보고 되었으나 이번에 소개한 유물은 1322년에 조성된 것이므로 가장 앞서는 셈이다. 또한 복장유물(腹藏遺物)이 제대로 수습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수습된 것만 보아도 지금까지 소개된 다른 유물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다. 구결자료(口訣資料)로서 중요한 문수사(文殊寺)의 아미타불복장(阿彌陀佛腹藏) 구역인왕경(舊譯仁王經)과 비교할만한 국어학 자료가 없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잘 보존된 섬유와 염색자료(染色資料)의 발견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연대(年代)가 확실한 벼(稻) 3립(粒)은 앞으로 농업사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관음상(觀音像)이 남았더라면 연대(年代)를 알 수 있는 예술품으로서 그 의미는 복장문서가 없는 상태보다 몇배의 가치를 더했을 것이다. 예술사에서 편년을 알 수 있는 유물의 증가는 이 분야의 척도(尺度)로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복장문서와 일치된 유물이 소급되어 입증된다면 연구자로서 그 이상 기쁨은 없겠다.

비록 주상(鑄像)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명칭과 시기로서 불교사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범자원형(梵字圓型)만다라와 그 이외 진언(眞言) 등은 밀교적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천수관음상(千手觀音像)은 밀교와 직접 관련된 불상형태이므로 1322년 당시 불교사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밀교는 신비성(神秘性)을 강조하는 불교의범(佛教儀範)과 관련있으므로 전혀 이를 배제한 불교의식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교리(教理)보다 의식(儀式)을 강조하거나 교학(敎學)의 실천을 강조할 경우, 그리고 안정기보다 급격한 전환기에 신비사상(神秘思想)과 결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800년대를 중심으로 비로차나불의 조성은 밀교적 성격이 강하였고,¹⁰⁾ 13세기 이후 대두된 신비성의 경향은 14세기에 라마교(喇嘛敎)를 숭상한 원(元)의 궁정(宮廷)과 연결된 부마국(鮡馬國)의 고려왕실로서는 밀접한 연결이 예상되어 왔다.¹¹⁾

고려후기의 불교계를 살펴보면 무신집권 이후 충렬왕(忠烈王)까지는 거의 선종(禪宗)(조계종, 曹溪宗)이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 천태종(天台宗)이 우세하였다. 충선왕(忠宣王) 이후는 모계(母系)가 원공주(元公主)의 혈연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국사·왕사는 유가종(瑜伽宗)과 천태종(天台宗)에서도 배출되고 특히 원왕실(元王室)과 공주(公主)를 위한 진전사원(眞殿寺院)으로 현성사(賢聖寺)·묘련사(妙蓮寺)·신효사(神孝寺)·흥왕사(興王寺)·민천사(旻天寺)

10) 文明大 「新羅下代 毘盧遮那佛像彫刻의 研究」 『美術資料』, 21, 22, 1977, 1978

11) 安啓賢 「麗元關係에서 본 高麗佛敎」 『黃義敦先生古稀紀念, 史學論叢』, 1960.

李龍範 「元代喇嘛敎의 高麗傳來」 『佛敎學報』 2, 1964.

등 선종(禪宗) 이외의 사원이 등장한다.¹²⁾ 이로 보면 선종(禪宗)의 단순성과 경건성에 비하여 천태종(天台宗)과 유가종(瑜伽宗)은 교리상의 복잡성을 라마교(喇嘛教)의 만다라에서 도상(圖像)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14세기중반에는 밀교경전(密敎經典)이 간행될 정도로 고려 불교계의 신비적 성향은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었다.

천수관음(千手觀音)이 조성되고 범자진언(梵字眞言)과 만다라가 복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은 당시 불교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좋은 예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최근에 이르러 발견되었을 뿐, 오랫동안 불교도에게 신앙되어온 예는 많지 않다. 특히 천수관음(千手觀音)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드문 예이다. 현존하는 불교유물 가운데 1300년대 전반의 것은 극히 적으며 이는 몽고의 라마교와 관계를 맺으면서 밀교적 경향이 강하였던 불교 예술의 일면이 조선건국과정에서 가장 심한 배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현존하는 13세기의 불교예술품으로서 불화(佛畵)와 사경(寫經)은 많은 수가 남아 있으나, 대부분이 일본에 존재하고 국내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유물에서 발견된 예가 많다.¹³⁾ 이는 밀교와 관련된 이 시기의 불교예술품이 조선건국 과정에서 가장 철저히 배격된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민왕의 불교에 대한 지원의 경향은 그가 후원한 정치세력의 변화만큼이나 굴곡이 심하였다. 그러나 조선건국후에 주류를 이루던 불교계는 선각국사(禪閣國師) 혜근(慧勤)(나옹화상(懶翁和尚)이라 불림)과 묘엄존자(妙嚴尊者) 자초(自超)(무학(無學)으로 알려졌음)의 계통이었고¹⁴⁾ 이들은 같은 종파의 태고화상(太古和尚) 보우(普愚)보다 세속적인 경향이 적고 수선사(修禪社)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혜근(慧勤)과 종파가 다른 천희(千熙)와 신돈(辛旽)은 태고보다도 더 세속의 정치에 관여하면서 갈등을 보였다. 이로 보면 1300년대 전반기에 조계종(曹溪宗)을 제외한 다른 종파는 조계종보다 밀교적 경향과 강하게 밀착되고 이 때문에 조선건국과정의 불교계의 탄압에서도 가장 심한 타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세기 불교계의 밀교적 경향은 경건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다만 수선사(修禪社)계통의 조계종만이 경건성을 유지한 최후의 보루였다.¹⁵⁾ 이러한 불교계에 풍미한 경향에 대해서 새로이 세속의 이념으로 경건성을 대표하는 성리학은 불교계의 밀교적 유산을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추측된다. 마치 기독교의 경건주의가 소박한 야만인인 게르만 민족과 결부되어 퇴폐성이 충만된 박쿠스신에 휩쓸려 광란하던 로마의 투기장과 목욕탕을 폐허로 파괴시키고 십자가를 세웠듯이, 성리학은 퇴폐한 밀교예술을 파괴하고 극히 단순화된 밤나무 위패로서 새로운 종교의 경건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맺음말

12) 許興植 「佛敎와 融合된 王室의 祖上崇拜」 『高麗佛敎史研究』, 1986, 一潮閣
千手觀音이라지만 실제수를 나타내지 않고 十一面이나 多臂로 표현한 정도의 鑄像도 千手觀音이라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三國遺事』 卷 3, 芬皇寺千手大悲가 있으나 실제의 像型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의 14세기 전반에는 多臂觀音像이 鑄成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복장물과 유물이 따로 분리되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

13) 李東洲 『日本속의 韓畵』
朝日新聞社 『高麗 9佛畵』, 1981
中央日報社 『高麗佛畵』, 1981
權熹耕, 前掲書

14) 許興植, 「東文選의 編纂過程과 佛敎史料」, 前掲書, p.786.

15) 『太祖實錄』 卷14, 太祖 7년 5월 戊午 興天寺監主尙聰上書

지금까지 1322년 주성(鑄成)된 천수관음상(千手觀音像)의 복장문서(腹藏文書)를 소개(紹介)하고 자료(資料)의 가치(價值)를 규명하였다. 이 자료를 품고 있던 관음상(觀音像)의 존재는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문서(文書)와 유물(遺物)이 함께 보관되고 있어서 아쉬운 느낌은 있으나 현존유물을 학계에 알려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이용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 복장유물은 밀교적(密敎的) 경향(傾向)이 강했던 몽고 압제하의 충숙왕시(忠肅王時)에 대구(大邱)의 부근에서 주성되었고 같은 지역의 사찰(寺刹)에 보관되었다고 추측되었다. 이 복장유물은 학계에 소개된 몇몇 예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염색된 섬유와 절대연도를 알 수 있는 벼(稻)알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서 농업사와 공업사에서 깊이 연구될 소재라고 추측된다.

천수관음(千手觀音)은 현존하는 예가 거의 없으나 몽고압제 아래서 밀교적 신비주의와 결부된 이러한 불상이 널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자(梵字)만다라는 라마교의 탄트라적 요소와 상통하는 유물로서 대체로 밀교의 도색적(桃色的) 퇴폐성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불교계의 흐름은 고려말에 대두된 척불론(斥佛論)에서 가장 지탄된 대상이라 하겠으며, 이 복장자료는 드물게 현존하는 파괴된 불교유물의 일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불교사와 미술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다만 관음상(觀音像)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